



◀ ‘신고선수’ 이종환 ▶ ‘만년 2군’ 최용규 ▶

잠자는 호랑이 우리가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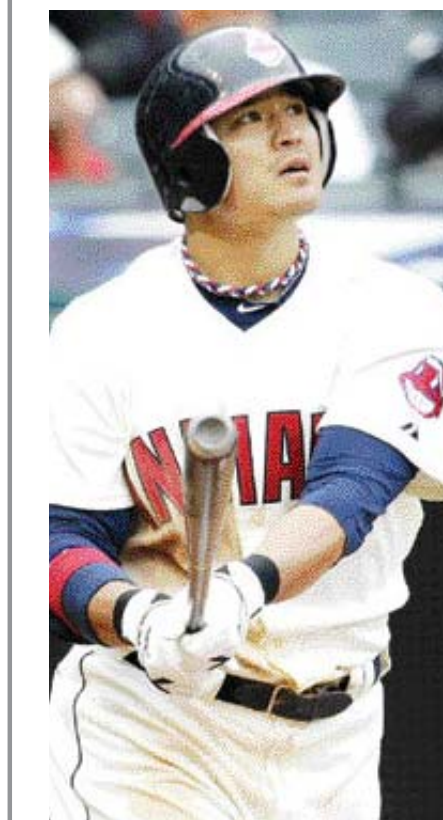
장거리포 타자로 멀티플레이어로... 위기의 팀 반전 시동

무명선수들이 ‘조범 현호’의 변화의 키를 쥐고 있다. 4월 답답한 공격을 이어온 KIA 타이거즈의 위기탈출을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하다. 지난해에도 초반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KIA는 김상현의 영입으로 변화를 꾀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김상현이 괴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겁없는 신인 안치홍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잠자던 KIA의 타선이 꿈틀거렸다. ‘깜짝스타’의 탄생이 잠자는 KIA를 깨울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시합대에 오른 2010 조범현호의 변화, 무명 이종환과 최용

규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환은 올 시즌 조범현 감독이 꼽은 전지훈련 스타 중 하나다. 지난 시즌 신고선수로 KIA에 등지를 틈 이종환은 파위를 앞세워 올 시즌 정식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미야자키 캠프에서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종환은 개막 엔트리에 합류했다. 1군이라는 높은 무대에 오른 이종환은 자신의 11번째 타석이었던 지난 4월11일 삼성전에서 2루타를 때려냈다. 프로데뷔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한 이종환은 다음 타석에서 또 다시 2루타를 터트리며 3-2 팀 승리에 기여했다. 그러나 28일 현재 이종환은 31타수 6안타 0.194의 타율로 3타점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

다. 장성호의 이탈로 생긴 좌타자의 공백을 대체할 선수로의 역할을 맡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홈런포를 가동하지 못했지만 6개의 안타 중 3개를 2루타로 장식하며 장타능력을 보여줬다. 타석에서의 조급한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투수와의 승부가 아직 설익기는 하지만 침착하게 볼 카운트 승부를 하면서 1군 적응을 하고 있다. 최용규는 지난 시즌부터 조범현 감독이 꾸준히 시험해온 선수 중 하나다. 내야수 출신의 최용규는 지난해 이용규, 채종범 등의 갑작스런 부상 속에 외야수로의 변신까지 감행하면서 멀티플레이어로의 변신을 주

문 받았다. 내·외야 1루까지 책임지며 좋은 역할을 했지만 타격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2군에 머물던 최용규는 지난 25일 김상현이 무릎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1군에 풀업했다. 내·외야 수비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던 최용규는 지난 시즌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성공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SK의 ‘괴물’ 김광현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트리기도 했던 최용규는 한층 매서워진 타격으로 김광현이 선발로 나선 29일 2번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을 했다. 조범현 감독이 시험해 온 이종환과 최용규의 움직임이 위기 속에 5월을 맞는 조범현 감독을 시험하게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속도 붙은 추신수

5연속 멀티안타·타율 0.338

‘추추 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5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2개씩 때리면서 타율을 0.338까지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29일(이하 한국시각)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프로 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원정경기에서 도루 1개를 결집하며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지난 25일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와 경기에서 2안타를 친 이후 5경기에서 꼬박꼬박 안타 두 개씩 쳤다. 그동안 타율은 0.300에서 0.338(77타수 26안타)로 경총 뛰었다. 덕분에 아메리칸리그 타격 순위에서도 스텔스 이치로(0.330)·시애틀 매리

너스)를 10위로 밀어내고 8위로 올라섰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순위에서도 13위에 올랐다. 또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14위(4개), 타점 공동 12위(15개)를 기록하고 있다.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1회 3루수 땅볼로 물러났으나 4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중전 안타를 때렸다. 이어 추신수는 5번 트래비스 해프너 타석 때 2루를 홈치는 데 성공했다. 볼카운트 2-0에서 내친김에 3루까지 욕심을 냈으나 아웃됐고 동시에 해프너마저 삼진 아웃을 당하면서 그대로 이닝은 끝났다. 추신수는 8회 선두 타자로 나와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났고 클리블랜드는 3-4로 패했다. /연합뉴스

재시동 거는 이승엽

“최선다하면 결과 따라온다”

이들 연속 대표를 쏘아 올린 이승엽(34·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모처럼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과 ‘산케이 스포츠’ 등은 29일 인터넷판에서 전날 나고야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와 경기에서 비거리 105m짜리 솔로포로 시즌 4호 안타를 그린 이승엽의 활약을 짚막하게 전했다. 일본 언론은 시즌 세 번째 선발 출장한 이승엽이 이들 연속 홈런을 터뜨렸으며 최근 4경기에서 홈런 3방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포츠닛폰은 팀은 2-8로 졌지만 이승엽은 벤치의 기대에 부응했

다고 제목을 달았다. 이승엽은 “매일 연습을 충실히 해 타격 감각이 올라오고 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온다”고 담담히 각오를 밝혔다. 이승엽은 지난해 홈런 3발을 빼앗은 주니치의 오른팔 에이스 요시미 가즈키를 상대로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측 펜스 바깥으로 보냈다. 이승엽은 이가와로부터 2006년 한일통산 400홈런을 터뜨리는 등 대표 5방을 뽑아내며 ‘킬러’로 활약했다. 홈런도 고무적이나 불박이 1루를 놓고 경쟁 중이던 게이메가 이날 홈을 파고들다 왼쪽 팔꿈치 관절을 다치면서 이승엽은 선발로 출전할 기회를 잡았기에 앞으로 활약이 더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뒤돌려 차기 얼굴 강타

29일 화순실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49회 전남도민체전 태권도 웰터급 예선. 무안 정찬승(청색)이 뒤돌려차기로 여수 신현희의 얼굴을 강타하고 있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종합우승 유력

대회 3일째... 수영·태권도·씨름서 1위

육상·수영서 3관왕 6명 나와



여수시가 2년만에 전남도민체전 정상에 빛날 것으로 보인다. 여수는 대회 3일째인 29일 수영·태권도·씨름 종합 1위, 사격 3위에 오르는 등 전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보이며 타 시·군을 제치고 종합순위 선두로 질주하고 있다. 2위는 순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목포와 신안이 3위를 놓고 치열한 득점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육상·수영에서는 3관왕이 6명이나 탄생했다. 육상에서는 이미영(해남)·우재은(여수), 수영에서는 서승훈(여수)·조유나(무안)·이인아(순천)·이선형(무안)이 각각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육상에서 우재은과 이미나는 남녀 100m·200m와 400m 계주를 나란히 휩쓸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영에서는 서승훈이 자유형 100m·개인혼영 200m·혼·계영 200m에서 1위로 끝낸 남자부문을 유일하게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부문에서 조유나는 자유형 100m·200m·혼·계영 200m, 이인아는 접영 50

m·접영 100m·계영 200m 그리고 이선형이 배영 50m 배영·100m·혼·계영 200m를 우승하며 3관왕 명단에 합류했다. 또 수영에서 최유진(화순)은 평영 50m와 평영 100m, 유영진(목포)은 배영 50m와 계영 200m에서 우승해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나주에서 열린 볼링에서는 광양이 강진과 여수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사격에서는 담양이 김영재의 개인전 우승에 힘입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궁도는 1위 고흥에 이어 신안과 진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태권도에선 여수가 순천·화순을 제치고 종합 우승했다. 시범종목인 역도는 녹차의 고희보성이 고희과 안도를 따돌리고 종합 1위를 기록했다. /화순=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국가대표 최급란 25m 권총 5연패

국가대표 최급란(창원시청)이 제6회 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25m 권총 5연패를 이뤘다. 최급란은 29일 서울 태릉사격장에서 벌어진 대회 25m 권총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본선 584점, 결선 204.5점을 쏘아 합계 788.5점으로 우승했다. 최급란은 시즌을 여는 첫 메이저 대회인 경호처장기대회를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제패했다. /연합뉴스